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인생에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어려움 없으면 남을 업신여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2월 10일)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선거철 '空約' 되풀이 불교정책 현실화 미흡

제자리걸음 반복하는 불교공약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오는 3월 9일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번만큼은 전통문화유산 보존 · 유지를 위해 불교계가 요청해 온 여러 숙원과제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통사찰을 옭매는 중복규제 해소, 전통문화 보존정책 강화, 국립공원 제도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불교계는 매번 선거를 앞두고 관련 정책들을 제안했고 각 후보들은 이에 공감해 공약을 내걸었지만, 대다수 공약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계종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불교 · 사회적 과제와 현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하면서 각 정당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당 차원에서 전통문화발전특위, 문화유산진흥특위를 구성하고 불교계가 그동안 요청해 온 전통문화 보존 · 유지를 위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 문화유산진흥특위(위원장 주호영)는 1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 전통사찰들을 옭매고 있는 각종 규제와 비지정문화재 일원화 필요성 등에 대해 공유 ·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더 적극적이다. 지난해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 관람료 왜곡 · 폄훼 발언으로 불교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인 만큼, 전통문화 보존 · 전승을 위한 불교계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교계 반응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불교정책 자료집에 담긴 정책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17 · 18 · 19대 대선 때도 제안됐고 공약으로 발표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리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때만 불심(佛心) 잡기식으로 불교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선거가 끝나면 외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뿌리 깊은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다.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징수되는 문화재관람료임에도, 전통사찰들이 국립공원으로 강제편입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재관람료는 선거때만 되면 후보들이 앞다퉈 내거는 대표공약이었다. 이명박 前 대통령은 문화재관람료 갈등해소를, 박근혜 前 대통령은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선거를 앞두고 '사찰의 직접 징수 대신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렇게 3명의 대통령을 거쳤지만 변화는 없었다.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매도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폄훼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퇴보하는 모양새다. 이는 불교계가 정청래 의원의 출당을 촉구하고 종교편향 · 불교왜곡을 규탄하는 승려대회를 예고하는 등 대대적인 결집에 나선 계기이기도 하다.

조계종, 20대 정책자료집 제작
전통문화 보존 · 사회 현안 등
각 당, 특위 구성해 개선 의지
불교계, 되풀이 공약에 '냉소'
문화재관람료도 수년째 반복돼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 각 정부부처로 분산된 관리체계 개선과 중복 법률규제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전통문화유산 통합전담기구 신설 등의 대안 역시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장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선거 때마다 정치권은 전통문화 보존과 관련한 여러 현안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며 "오랜 세월 희생을 감수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보호해 온 불교계 노고는 사라지고 '봉이 김선달'로 매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기 2566(2022)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 재가 종무원 대표가 신년 떡 케이크를 절단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희망찬 한국불교 위해 함께 정진"

조계종 1월 4일 임인년 종무기관 시무식 봉행

기관 종무원들 온라인 동참
원행 스님 노력과 인내 강조
"능동적인 종무행정 임할 것"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1월 4일 중앙종무기관 시무식에서 신년인사를 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임인년 시무식을 열고 "희망찬 한국불교를 위해 함께 정진하자"고 다짐했다.

조계종은 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기 2566(2022)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봉행했다. 이날 시무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지침에 따라 대중 모임이 제한되면서 최소인원만 참석한 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서로간의 합장삼배로 시작된 이날 시무식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종무원들에게 "위기 대처를 위해 공심과 원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불기 2566년은 통합종단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위협으로 모든 일정이 자유롭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한 가운데 종단은 주요한 종무 및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되는 종교 편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국가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36대 총무원 집행부 마지막 해를 맞아 종무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대내외 위기 속에 진행된 종무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불교 중흥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듯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일지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가 있는 인내로 반드시 성공하고야 만다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을 강조한 스님은 "공심과 원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종무에 임하고 모두가 상생과 통합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이루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원행 스님은 "기후위기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상호모순 상황에서 전통적 종교 역할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국민 저변에 자리잡고 있는 불심을 일으켜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데 사부대중의 전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신년 덕담에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강조하며 종무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종단의 큰 선거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라며 "안팎의 상황이 녹록치 않더라도 신심을 다해 임한다면 희망찬 새해,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단에 닥친 위기 대처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강조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한국불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종무원에게 달려있다"며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법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신심과 원력이 충실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무원을 대표해 윤혜영 사업부 주임은 "지금 우리가 한국불교의 희망임을 잊지 않고 흔들림없이 정진해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윤 주임은 발원문에서 "한국 불교 중흥을 이루기 위해 원력보살로 살고자 발심한 지난 시간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원력이 사회 곳곳 불법의 환희로 회향되길 바란다"며 "사찰과 스님, 신도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조계종 종무원의 존재 가치임을 증명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부처님 전에 기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농선 대원 선사의
대방광불화엄경 81권
완역본 출간기념
할인 판매

수덕사 만공선사 법맥과 대각사 용성선사 강맥을 한 몸에 받은 혜안으로 전등록 30권과 선문염송 30권을 역해하고 1,463칙 전 공안에 착어를 하신 바 있는 불조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선사께서 81권 화엄경과 화엄경의 이해를 돕는 각 품의 요점을 요약한 소책자까지 드디어 출간 완료하였습니다.

불교 경전의 정수에 해당하는 화엄경 81권 완역 출간을 기념하여 81권 세트 121만원을 할인된 금액으로 100만원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300부 한정, 선착순 주문 받습니다.
차후로는 지면을 통한 화엄경 추가 출간 계획이 없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문젠 010-3880-8980





